

라디오가 들려주는 소리 정치성

- 영어 교통방송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세계화와 다문화 개념

김수진*

1. 들어가는 말
2. 음악연구에서의 다문화
3. 소리로 세상을 듣다: 쉼퍼의 개념으로 본 다문화 사운드스케이프
4. 소음이 된 “다”문화: 이탈리아의 소음(Noise)개념으로 본 세계화와 다문화
5. 나가는 말

국문요약

‘다문화’, ‘세계화’라는 개념이 다양한 학문 분야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영어 교통방송(TBS eFM)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재구축하고 있는 다문화, 세계화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 교통방송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방송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 광주, 대구, 부산 등의 지역 라디오 채널로도 만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실생활 편의 도모와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라디오 채널 이름이 보여주듯이 한 개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영어로만 방송 되고 있으며 방송에서 다루는 음악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대중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음악 연구에서의 다문화 관련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며

* 경주대학교 국제화교양과정정부 조교수

레이 쉐퍼(Murray Schafer)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을 살펴본다. 소리가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는 그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은 소리를 통해 다변화 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의 노이즈 개념을 살펴보면서 다문화의 다양한 소리들을 사실상 주변의 소음으로 간주하고 통제해온 소리의 정치성을 논의한다.

(주제어: 영어 교통방송, 다문화, 세계화, 국내 거주 외국인, 사운드스케이프, 소음, 음악)

1. 들어가는 말

서울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영어로만 진행되는 채널을 만나게 된다. 라디오 채널 101.3. 교육방송이 아닌 ‘영어 교통방송’인 TBS eFM 이야기다. 2008년 12월 1일 개국하여 영어로만 진행되던 것이 2013년 10월 14일부터 중국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편성하여 현재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생활가유참’이라는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대중가요를 포함하는 ‘서울생활가유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로만 진행이 되며 음악도 미국 영국의 대중 음악이나 한국의 케이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이 아닌 서울 지역 라디오 FM 정규 방송으로 온종일 다른 언어로 진행이 된다는 게 흥미롭다. 이 라디오 채널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방송일까. “국내 거주 (방문) 외국인의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TBS eFM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들을 수 있다.¹⁾ TBS eFM은, “유용하고 품격있

1) 방송연차보고서, 2009, 23-24쪽.

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문화강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 친화적 환경조성에도 기여하는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받아 왔다.²⁾³⁾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TBS eFM이 첫 방송을 내보낸 2008년은 우리 사회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폭발적인 증가 양상을 두고 세계화의 의미를 되짚고 다문화 개념을 교육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활발하게 내놓기 시작할 즈음이기도 하다.⁴⁾ 이 글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TBS eFM이 생각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이 라디오 채널이 청취 대상으로 삼는 외국인을 보여주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지향하는 ‘세계화’와 ‘다문화’ 개념의 다중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국내 거주 외국인, 세계화와 다문화 개념은 서로 얽혀 있다. 왜냐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다문화를 한국 사회에 소개, 재현하고, 재생산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재구성한 다문화 개념의 틀 속에

2) “시민의 방송 tbs, 글로벌 시대를 맞아 영어 FM 개국!! - FM 101.3 MHz “tbs -eFM” 개국, 애칭은 “SOUL-FM” -” http://www.kcta.or.kr/bbs/board_view.asp?pNum=9223&page=17&bbsID=trend&backUrl=board_list.asp (2014. 12.10 접근)

3) 사실 영어 라디오 방송은 아리랑 국제방송이 먼저다. 1997년에 주한 외국인을 청취자로 삼아 케이블 방송을 시작한 아리랑 국제방송은 2003년에 제주 지역에서 영어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지상파 및 위성 DMB를 방송했으며 2009년 부산으로 방송권역을 넓혔다. TBS eFM이나 아리랑 라디오 모두 영어를 방송 언어로 사용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제주, 부산과 비교해보았을 때,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TBS eFM이 더 폭넓은 청취자를 포함할 수 있다.

4) 2008년이 다문화 개념을 처음 논하기 시작한 때는 아니다. 2000년대 초 처음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던 것이 2004년과 2005년부터 다문화 관련 논의가 언론 보도와 학문적 결과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유준(『이산된 소리, 단절된 기억의 정치학: 세계화와 다문화시대의 음악과 민족』, 『음악과 민족』 제 35권, 2008, 49-68쪽.)이나 박미경(『종족음악학과 다문화음악교육: 그 만남의 지점 찾기』, 『음악과 문화』, 제 28권, 2013, 5-33쪽.)의 둘의 연구는 흥미롭게도 2008년의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당시 한국 사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다문화 사회를 논의하던 때였는지를 역설했다.

서 가능하기 때문이며, 다문화 개념은 세계화 현상이 한 사회 안에서 어떻게 재구성 되는지를 들여다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다면, 국내 거주 외국인을 청취자로 생각하는 TBS eFM이 재현하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와 세계화 사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영어 교통방송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이 글은 영어 교통방송에서 만들어내는 소리를 토대로 우리사회에서 재구성하고 있는 세계화와 다문화 개념을 탐색해 본다. 여기서 말하는 소리란 방송되는 음악과 함께 진행자와 참여자들의 말 소리도 포함한다. 음악만 보지 않고 언어의 소리와 발화에도 주목하는 이유는, 영어 교통방송의 언어 발화는 방송되는 음악을 생산하는 문화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음악 문화연구가 악곡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모든 소리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가 다문화를 다양한 문화를 포용해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해 왔다면, 이 글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재구축하고 있는 세계화와 다문화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단면을 살펴보고, 그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역학 관계를 논의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음악 연구에서 다문화 관련 연구가 어떻게 전개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머레이 쉐퍼(Murray Schafer)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을 살펴본다. 소리가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는 그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은 소리를 통해 다변화 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의 노이즈 개념을 토대로 영어권 음악과 한국 대중 음악이 다문화의 다양한 소리들을 사실상 주변의 소음으로 간주하고 통제해온 소리의 정치성을 논의한다. 그의 노이즈 개념은 세계화의 일면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문화 사회가 한국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 틀

에서 수용되는 실재를 탐색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글은 TBS eFM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거나 라디오 프로그램의 운영과 수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TBS eFM의 설립 취지와 프로그램의 전반적 편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세계화 개념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비판 없이 수용되어왔던 개념들을 재평가하면서 진정으로 다문화를 포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음악연구에서의 다문화

다문화 혹은 다문화주의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이산, 이주민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리스어로 디아스포라(diaspora)는 ‘흩어진’, ‘이산’이라는 뜻으로 이주민을 지칭하는데 쓰인다. 이주민의 역사가 긴 미국, 유럽, 호주에서는 디아스포라 연구가 꽤 진지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다양한 삶의 역사와 이주, 이산의 사연을 가진 이주민들이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관심을 둔 이 연구 분야는 이주민들의 문화 정체성(cultural identity)에 특히 주목해왔다. 디아스포라 연구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논의 된다. 디아스포라가 이산, 이주로 인한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세계화는 사람의 이동을 포함해 상품, 자본, 문화의 이동을 아우르는 것으로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타 문화권과의 만남으로 일어나는 현상 제반을 일컫는다.

음악학에서도 세계화의 영향과 이주민에 관한 관심은 1980년대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음악 연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뉴 그로브 사전(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은 음악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로 디아스포라를 별도 항목으로 채택하고 있기도 하며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수행되는 최근 음악학 연구의 동향을 보면 디아스포라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해외 한인들의 음악 문화와 의미를 찾는 데 관심을 둔 연구를 꼽아보면 중국 내 조선족에 대한 연구⁵⁾, 러시아와 중국의 한인,⁶⁾ 중앙아시아,⁷⁾ 일본 재일동포,⁸⁾ 미국⁹⁾ 등이 있다.¹⁰⁾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 뿌리를 두고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의 이주 역사와 이주의 원인, 이주국의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 음악활동에 관심을 두고서 한국계 이주민들의 음악 역사를 재구성하기도 하고 음악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을 살펴보기도 한다.

한국 밖 세계 여러 곳에서 한국을 모국으로 삼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

5) Koo, Sun Hee, "Inventing Ethnic Music: The Vocal Music of Korean Ethnic Minority Musici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ian Musicology*, vol. 16, 2010. pp. 5-42. Koo, Sun Hee, *Sound of the Border: Music, Identity, and Politics of the Korean Minority Nationalit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2007.

6) Um, Hae-kyung (ed), *Diasporas and Interculturalism in Asian Performing Arts: Translating Traditions*, London: Routledge, 2005. pp. 43-60.

7) Um Hae-Kyung, "Listening Patterns and of Identity of the Korean Diaspora in the Former USSR", *British Journal of Ethnomusicology*, vol. 9, no. 2, 2000. pp. 121-142; Um Hae-Kyung, "Community, identity and performing arts: the Korean Diaspora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Diasporas and Interculturalism in Asian Performing Arts: Translating Traditions*, London: Routledge, 2004. pp. 43-60

8) 유영민, 『경계를 넘나드는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음악 자이니치 코리안의 음악을 중심으로』, 『음악학』, 제 20권, 2011, 7-27쪽.

9) Kim, Soo-Jin, *Diasporic P'ungmul in the United States: A Journe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2011; Yu, Youngmin, *Musical Performance of Korean Identities in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7.

10) 재외 동포, 교포, 재외 한국인 등 수많은 용어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의미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는다.

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음악과 새로이 만들어지는 사운드시케이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색하려는 학문적 관심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¹¹⁾ 1990년대 말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주민들의 숫자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제3세계 국가 출신의 근로자라는 사회학과 인류학의 흥미로운 관심사를 양산해냈다. 이와 비교해보았을 때, 음악 연구 영역에서는 이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특정 음악활동에 대한 관심보다는 음악 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 음악 교육의 방향에 대해 꾸준하게 논의해왔다.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가하면¹²⁾ 음악인류학의 관점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¹³⁾ 국악 교육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연구도¹⁴⁾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음악 문화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다문화화를 정의하고 다문화화를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기술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관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화를 향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구호처럼 외치는 당위성 이면에 담긴 우리 사회가 다문화화를 수용하는 태도와 실례, 실재를 보여주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는 복잡

11) 윤혜진(윤혜진,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비한국계를 중심으로』, 『음악과 문화』, 제 10권, 2004, 163-200쪽.)과 강연희(강연희, 『국제 이주노동자밴드의 등장요인과 공연활동 현황』, 『음악과 민족』, 제 42호, 2011, 107-152쪽)의 연구를 제외하고 최근까지 직접적으로 국내 이주민들의 음악 활동에 관심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12) 민경훈,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예술교육연구』, 제7권 1호, 2009, 93-111쪽.

13) 손민정, 『다문화적 음악의 이해를 위한 소고』, 『낭만음악』, 제 20권 3호, 2008, 135-156쪽. 김성혜, 『다문화음악교육에 대한 음악인류학적 단상』, 『음악이론연구』, 제16권, 2011, 8-28쪽. 박미경, 『종족음악학과 다문화음악교육: 그 만남의 지점 찾기』, 『음악과 문화』, 제 28권, 2013, 5-33쪽.

14) 박혜정, 『다문화 음악의 이해 및 그 적용 : 음악교육의 사례』, 『국악과교육』, 제 10권, 1992, 103-171쪽.

한 역학 관계 속에서 재구축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혹은 세계화 개념을 둘러싼 정치성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소리로 세상을 듣다: 다문화 사운드스케이프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라는 용어는 캐나다 작곡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머레이 쉐퍼(Murray Schafer)가 고안한 용어이다. 사운드스케이프는 소리(sound)와 풍경(landscape)의 합성어로 소리 환경 제반을 다 포함하기도 하며 음악 작품이나 테이프 몽타주와 같은 구조도 일컫는다. 캐나다 태생인 쉐퍼는 변화하는 세계, 특별히 산업 시대로의 변화가 가져온 소리 환경 변화에 관심을 두고 여러 작곡가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로 구성된 '세계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 (World Soundscape Project 이하 WSP)'를 캐나다 시몬 프레이저 대학에 발족했다.¹⁵⁾ 캐나다 밴쿠버의 소리 환경을 녹음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 캐나다 여러 지역들, 그리고 유럽의 다섯 지역의 소리를 녹음하고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을 확대, 발전시켜 소리를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중요한 접점으로 간주하는 음향생태학의 초석을 다졌다. 쉐퍼는 소리 환경 자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 소리가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과 맥락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읽어내고자 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소리가 음악적 재료가 될 수 있으며 콘서트 홀 밖의 외부 환경 모

15)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조. <http://britishlibrary.typepad.co.uk/sound-and-vision/2013/07/five-european-villages.html> (2015. 1.3일 접근) 와 <http://www.sfu.ca/~truax/wsp.html> (2015. 1.3. 접근)

든 소리가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다는 비유는 음악가들에게 특히 자극이 되었다.¹⁶⁾ 그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은 “개인 혹은 특정 사회가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강조점을 둔 소리환경으로서 각 개인의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관심을 둔 것이다.¹⁷⁾ 쉐퍼가 WSP를 수행하면서 얻은 연구물의 총체는 그의 저서 “The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he Tuning of the World(사운드스케이프: 우리의 소리 환경과 세계의 조율)”에서 면밀하게 다뤄졌다. 그는 이 책에서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을 통해 서구 문명사에서 지식의 습득과 전수가 시각에 의존해왔음을 지적하고 청각에 의지한 역사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쉐퍼는 서구 사회가 신을 형상화하기 시작하던 르네상스 이래, 보는 것이 지식을 습득하는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매개가 되어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쓰고 읽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각이 청각보다 중요해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¹⁸⁾ 그는 사운드스케이프 연구가 과학, 사회, 예술 모두를 아우르는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음향학과 심리음향학에서는 소리의 물리적 성격과 인간이 그러한 소리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게 되며, 사회로부터는 인간이 어떻게 소리에 반응하고 소리가 어떻게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지를, 예술에서는, 특별히 음악에서는 인간이 이상적 사운드스케이프를 어떻게 창조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¹⁹⁾ 그의 책 전반부는 다양한 사운드스케이프를 역사적 맥락

16) Shaffer, Murray,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uning of the World*, Rochester: Destiny Books, 1977. pp.110-111. 김서경, 「사운드스케이프의 음악교육적 적용방안」, 『음악과 민족』, 제 38권, 2009, 399-426 쪽 재인용.

17) 김서경 「사운드스케이프의 음악교육적 적용방안」, 『음악과 민족』, 제 38권, 2009, 405 쪽.

18) Shaffer, Murray,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uning of the World*, Rochester: Destiny Books, 1977. pp.10-11.

19) Shaffer, Murray,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uning of the World*,

속에서 재구성 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소리 분석의 방법을 제공하면서 사운드스케이프를 디자인 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책의 전반부이다. 쉐퍼는 산업화를 기점으로 사운드스케이프를 구분짓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을 “최초의 사운드 스케이프”로 그 이후를 “산업화 이후의 사운드스케이프”로 나누어 최초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동물과 곤충 등 생명체가 만드는 소리, 도시 외곽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소리, 마을에서 도시까지를 아우르는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들을 포함한다. 산업화 이후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산업 혁명과 전기 혁명에서 비롯된 소리의 변화에 주목하는데, 여기서는 기계, 공장의 장비들, 증기기관차, 트럭,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 공장의 드릴 소리 등이 포함 되며 전화, 축음기, 라디오의 경우는 특별히 전기 혁명으로 인해 얻게 된 새로운 사운드스케이프의 예가 된다.²⁰⁾ 쉐퍼는 산업화로 발생된 소음은 권력의 척도가 되며 이는 제국주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²¹⁾ 쉐퍼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은 우리 주변의 모든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리가 발생하는 맥락과 그러한 소리에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화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적 산물로서 음악을 연구하는 음악인류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들은 소리의 맥락화에 관심을 두었던 쉐퍼의 사운드스케이프 용어를 자주 써왔다. 한 예로, 케이 코프만 쉐러메이(Kay Kaufman Shelemay)는 미국

Rochester: Destiny Books, 1977. p. 4.

20) 사운드스케이프의 구체적 예들은 Shaffer, Murray,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uning of the World*, Rochester: Destiny Books, 1977. pp. 139-143을 참조.

21) Shaffer, Murray,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uning of the World*, Rochester: Destiny Books, 1977. pp. 77-78.

대학의 월드뮤직 수업에서 교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자신의 책 제목을 “Soundscapes: Exploring Music in a Changing World(사운드스케이프: 변화하는 세계의 음악 연구)”라고 채택하고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음악과 사회적 의미를 풀어낸다. 소리 환경이라는 의미에서 사운드스케이프는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을 포함해 말 소리와 음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 또한 사운드스케이프는 시각을 통해 전해지는 풍경보다도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인식하게 한다. 쉐퍼가 강조했던 것처럼 시각에 관련된 이미지는 눈을 감으면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청각은 자유 의지로 차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²²⁾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이 된 세계화와 다문화라는 용어는 용어만으로 보았을 때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개념을 청각으로 지각하고 구체화 시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타 언어권에서 온 사람들의 말 소리와 음악 만들기도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춰보았을 때, 현대 한국 사회의 사운드스케이프는 보다 더 다양해졌으며 세계화와 다문화가 우리의 일상 영역에서 꽤 구체적으로 청각을 통해 인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사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고 소비하는 주체는 서구 출신의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다문화 사회에 도달했다는 한국에서 이러한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양한 민족 구성원으로 이뤄진 결혼 이주자, 이주 노동자 출신 등을 포함할 수

22) Shaffer, Murray,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uning of the World*, Rochester: Destiny Books, 1977. p. 11.

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세계화와 다문화라는 용어는 서구와 한국 사회, 그리고 아시아의 주변 국가 사이의 불균등한 힘의 관계를 용인한 채 사용되어왔다. 여기서 서구와 한국은 주체로, 제3세계 출신의 한국 거주 외국인인 늘 타자로 존재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 연보 2013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에 거주 및 방문한 외국인의 숫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적별 체류 외국인을 보면 중국인이 49.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 다음 2위가 미국인으로 8.5%이며 3위부터 9위까지는 베트남(7.6%), 일본(3.6%), 필리핀(3.0%), 타이(3.5%), 인도네시아(2.6%), 우즈베키스탄(2.4%), 캄보디아(2.0%), 기타(13.4)로 구성되어있다. 2위를 차지한 미국인과 기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시아 지역에서 건너온 경우다. 한국에서 이들이 만드는 사운드스케이프도 무척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동시에 이들 모두는 한국 사회에서 구축하는 다문화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방송이라는 TBS eFM은 그러나 미국 국적과 기타를 다 합쳐서 20프로에 달하는 숫자에 맞춘 영어 방송이다. 물론 기타(13.4%)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모두 영어권 출신이라고 가정했을 때이다. 중국어 방송이 황금시간대인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고정 프로그램으로 생겼지만 그 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 영미 문화권에서 생산된 음악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만들고 소비하는 사운드스케이프의 일부만을 방송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 출신이거나 교포 혹은 영어 진행에 무리가 없는 한국인이다. 방송 개국 초기의 진행자들을 살펴보더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지역 출신을 찾기 힘들다. 결국 방송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아시아 지역 태생의 외국인을 제외한 유럽과 오세아니아, 미주 지역의 외국인

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TBS eFM이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의 외국인, 다문화 담론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외국인은 영어를 구사하는 하얀 얼굴의 서구인이며 아시아 지역 출신은 외국인이 아닌 다문화 생산자이자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로 존재한다. 외국인이라는 접두어가 붙어도 언제나 노동자라는 단어가 뒤따라 와 외국인 노동자이지, 외국인이라는 개별 주체로 고려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과 다문화의 용어의 구분점에는 모하계도 인종과 언어가 기준이 된 헤게모니가 숨겨져 있다는 인상을 준다. 최숙은 TBS eFM을 분석하면서 이를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²³⁾ 그가 이야기한 인종은 영어를 구사하는 백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방송이 생각하는 청취자 층과 실제 이 방송을 듣는, 혹은 들을 수 있는 청취자를 고려해본다면 이해 가능한 대목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소수 이주민들의 언어를 일일이 방송에 반영할 수는 없다. 또한 TBS eFM의 청취자에 영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법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방송 언어만을 고려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방송 진행에 사용되는 언어 외에도 TBS eFM에서 방송되는 음악의 종류와 장르를 고려해본다면 “국내 거주 외국인” 일부의 사운드스케이프만이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의 것들이 다문화라는 개념으로 통용된다. 다양한 개별 문화로 독립된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아닌, 제 3세계에서 온 문화적 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문화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아시아의 모든 것, 주변부의 집합 개념으

23) 최숙, 『국내 영어 FM 라디오에 대한 비판적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8권 2호, 2010, 144쪽.

로 받아들여진 것일까. 왜 진심어린 이해로 다가간 다문화의 사운드스케이프가 방송에 투영되지 못하는 것일까. 다음 부분에서는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의 소음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화와 다문화 개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소음이 된 “다”문화: 아탈리의 소음(Noise)개념으로 본 세계화와 다문화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아탈리는 “Noise: The Political Economy of Music (소음: 음악의 정치 경제)”저서에서 서양 음악 문화의 역사를 정치 경제의 맥락에서 재구성한다. 저서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기본적으로 음악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소음”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아탈리는 음악이란 “소리로 구성된 얇은 체계”라고 주장한다.²⁴⁾ 음악이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했던 칼 마르크스나, “진실의 표현”이라고 한 니체, 혹은 “해석해야 할 텍스트”라고 본 프로이트와 맥을 같이하는 아탈리에게 음악은 세계를 인지하는 것이며 이해를 위한 도구가 된다.²⁵⁾ 즉 음악은 사회적 동의로 구성되는 음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소음은 사회적 동의와 합의 체계에서 벗어난 모든 소리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음은 무질서와 전복을 상징하며, 음악은 사회적 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소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세계를 대변한다.²⁶⁾ 음악이 당대 세계를 상징한다는 점에 미뤄본다면, 음악과 관련한

24) Attali, Jacques, *Noise: Political Economy of Music*,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p. 4.

25) Attali, Jacques, *Noise: Political Economy of Music*,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p. 6.

26) Attali, Jacques, *Noise: Political Economy of Music*, Minneapolis: University of

모든 규율들은 당대의 “이데올로기와 테크놀로지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생산해내기도 한다는 그의 설명이 이해가능하다.²⁷⁾ 그는 그러한 사회적 동의 및 승인을 정치적 힘과 경제적 가치에서 찾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음악 문화의 시대적 구분을 그는 작품과 작곡가 혹은 장르의 변천에서 찾지 않고 “희생”, “재현”, “반복”, “구성”의 개념으로 설명해 낸다.²⁸⁾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할 아탈리의 관점은 소음을 사회적 합의에 음악으로 규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바탕으로 “음악의 전유와 통제에는 힘이 투영”되어있으며, 그래서 “음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고 한 데에 있다.²⁹⁾ 다시 말해 음악이라고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것들은 소음으로 남게 되며 소음으로 남겨진 소리들은 제도권의 규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 쉼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아탈리의

Minnesota Press, 1986, p. 6.

27) Attali, Jacques, *Noise: Political Economy of Music*,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p. 19.

28) 희생은 종교적 역할을 담당하던 음악가와 유랑 음악가가 두드러졌던 중세시대를 대변하는 개념이다. 중세시대에 음악은, 군주제 사회에서 일정한 규칙을 부여 받은 소음이 음악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사회의 무질서에 조화로움을 가져다주는 매개가 되었다. 재현은 시장 경제가 본격적으로 음악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자 이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음악적 규칙들과 지배적인 음악적 미학관이 이전 시기보다 두드러지는 때이다. 부르주아지 계층의 역할 뿐 아니라 악보 산업 등 대량 생산의 가능성이 음악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다. 반복은 레코드와 라디오 등 음반의 재생이 가능해진 시대를 일컫는다. 아탈리는 반복의 시대에는 히트 퍼레이드, 쇼 비즈니스, 스타 시스템이 일상화가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 시기는 오리지널의 죽음, 복제의 승리, 그리고 재현되어진 원형을 망각하게 된다고 전한다. 마지막 시기인 구성은 아탈리가 현대와 앞으로의 음악 문화를 관망하는 개념을 보여주는 것으로 프리재즈나 존 케이지의 예처럼 끝나지 않은 과정으로서의 음악으로 설명된다. 이 책은 네 시기에 따라 음악가의 역할이 달라지고 그들이 만든 악곡들이 정치 경제의 어떠한 맥락에서 소음이 아닌 사회적으로 승인된 음악적 소리가 되는지를 풀어낸다.

29) Attali, Jacques, *Noise: Political Economy of Music*,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p. 6.

책이 세상에 처음 소개 된 것은 1977년이다. 그리고 프랑스어판이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 1985년의 일이다. 쉘퍼의 WSP 프로젝트 연구 결과물의 집약체인 사운드스케이프 책 또한 1977년에 출판되었으니 아탈리와 쉘퍼 두 사람이 경제와 음악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소음에 대해 비슷한 관점을 학계에 소개한 것이 같은 해이다. 쉘퍼는 아탈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소리 구조는 한 사회의 다양한 사운드스케이프를 형성하는데 이 중 음악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귀에 거슬리는 모든 것이 소음이라고 규정했다. 쉘퍼는 가장 먼저 일본이 소음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던 것을 소개하면서 각 사회마다 소음이라 간주하는 소리가 다름에 주목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소음은 각 언어권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용어”라고 설명한다.³⁰⁾ 쉘퍼가 소음을 규제하는 제도권의 힘의 작용에 지각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아탈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음과 음악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제도권의 자본과 정치적 힘에 보다 관심을 두었다. 이에 아탈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리로 조직된 모든 음악은 공동체와 전체를 위한 도구이다. 음악은 힘과 관계된 것이며, 보다 일반적으로 음악은 모든 형태에서 힘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오늘날 힘과 관련된 이론은 소음의 지역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소음이 어떻게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지를 포함해야만 한다.³¹⁾

그 중에서도 소리를 기록하는 데 필요한 힘은 고대 사회에서 신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과 관계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아탈리는 소리를 기록,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었

30) Shaffer, Murray,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uning of the World*, Rochester: Destiny Books, 1977. p 183.

31) Attali, Jacques, *Noise: Political Economy of Music*,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p. 6.

다고 말한다.³²⁾ 아탈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힘은 다른 사람이 만든 소음을 줄일 수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떤 목소리를 들리게 하느냐와 관계가 있다.³³⁾

사운드스케이프로 존재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없는 '다'문화의 소리는 우리 사회가 '소음'이라고 암묵적으로, 그러나 공공연하게 동의하는 것들이다. TBS eFM에서 방송되는 음악은 이를 보여준다. 이 방송사는 총 13 여개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중간 중간 영국의 BBC 방송사의 뉴스를 재송출하는 'BBC Headline 뉴스'(오전 8시, 11시와 오후 4시, 8시)와 TBS eFM이 자체 제작한 'eFM NEWS'(오전 7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2시, 6시, 7시, 10시)를 방송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여느 FM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이 음악과 시사, 교양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³⁴⁾ 방송되는 음악은 앞서 살펴본 '서울생활가유침'(매일 저녁 8시~10시 방송)을 제외하고 모두 영미권과 한국의 음악들이다. 대부분은 대중음악이나 영화음악 등을 다루고 있지만 몇 개의 프로그램들은 그 이외의 음악들을 다룬다. 클래식이라고도 통용되는 서구 예술 음악을 방송하는 'Classical collection(클래식 모음)'(주말 7시~8시 방송), 한국의 전통 음악 혹은 창작 국악을 들을 수 있는 'Sounds of Korea(한국의 소리)'(주말 8시 5분~8시 30분 방송), 재즈만을 방송하는 'Uptown James

32) Attali, Jacques, *Noise: Political Economy of Music*,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p. 87.

33) Attali, Jacques, *Noise: Political Economy of Music*,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p. 122; Attali, Jacques, *Noise: Political Economy of Music*,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p. 132.

34) 시사 정보 교양 프로그램 중 '1013 Main Street(1013 메인 스트리트)'(월~금 오전 10시~정오)는 한국 거주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를, 'This Morning(오늘의 아침)'(월~금 오전 7시~9시)과 'Prime Time(프라임 타임)'(오후 6시~8시)은 한국에서 회자되는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업타운 제임스)(주말 10시~12시 방송)가 있다. 이 예외 프로그램들은 TBS eFM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는 음악 장르를 방송하지만 유럽이나 북미 혹은 한국 문화권의 음악들이나 것에서는 TBS eFM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음악과 마찬가지로이다. 전체 방송 프로그램 선곡을 살펴보면, 몇몇의 프로그램들이 특정 장르에 주목해서 음악을 소개하고 있는데, 새벽에 방송되는 '라:플레이'(매일 0시~2시)는 소울, 스윙, 재즈, 발라드, 로큰롤, 블루그래스를, 오디션 프로그램인 위대한 탄생 시즌 2에서 준우승을 했던 배수정이 진행하는 'Moonlit Tracks(달이 빛나는 밤의 음악)'(매일 새벽 3시~4시)은 하우스에서 일렉트로 뮤직을, '22nd Hour(22시에)'(매일 밤 10시~0시)는 클럽 음악이나 영화 음악 등 최신 음악들을 다룬다. 이외에도 한국 대중음악에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에서 솔리드 멤버로 활동을 했던 김조한이 진행하는 'Ministry of Kpop(케이팝미니스트리)'(매일 새벽 2시~3시)과 대중가수로 잘 알려진 As One이 진행하는 'K Popular(케이 파퓰러)'(월~토 12시~2시)는 케이팝이라 특별하게 구분되고 있는 최신 한국 대중음악부터 다양한 장르의 한국 대중 음악들을 다룬다. '케이팝 미니스트리'는 한국 대중 음악사를 짧게 소개하는 코너나 노래가사에 주목해서 음악을 소개하는 코너를 포함하고 있으며 '케이 파퓰러'는 매주 화요일 고정적으로 트로트를 집중적으로 방송하는가 하면, 매주 수요일에는 케이팝 가수들이 전하는 짧은 오디오 메시지를 내보낸다. 또한 토요일에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유행하던 가요들을 들려준다. 이 두 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TBS eFM의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장르에 주목하지 않고 영미와 한국 대중 음악을 두루 방송한다.

이렇게 TBS eFM 방송을 매개로 듣게 되는 음악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만드는 소리, 혹은 그 사람들이 본국에서부터

들어오던 소리를 함께 즐기고 듣는 일은 아직 요원한 것 같다는 생각을 품게 한다. 영미 대중 음악과 한국 대중 음악을 제외한 다른 음악을 관심 밖의 ‘다문화 소음’으로 여기는 구분 속에는 아탈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와 자본의 힘이 내재해있다. 그 힘은 상품화 된 음악을 만든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던 힘이기도 하며 그 음악을 홍보하고 유통하는 힘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영미 문화권은 대중 음악의 근원지이자 근대 이후 우리 사회가 줄곧 지향해왔던 닮고 싶은 모델이기도 했다. 영미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이상향으로 존재해왔다면, 최근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케이팝은 우리 사회가 기타 아시아지역을 선도하는 대중문화의 모델로 논의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영미 문화권과 한국 사회 사이의, 그리고 한국 사회와 기타 아시아 지역 사이의 불균등한 힘의 차이가 한 사회 안에서 음악으로, 소음으로 재구성되는 기준이 된 것이다.

이렇게 다문화가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을 대변하게 된 데에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놓은 세계화의 방향 때문은 아닌지 들여다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TBS eFM은 2008년 초기부터 “문화강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친화적 환경조성에도 기여하는 방송”이 되는데 분명하게 목적을 두었다.³⁵⁾ 또한 2014년의 사업 계획을 보면 금융, 관광, 의료, 다문화 등 외국인의 서울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안내방송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5년 사업계획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인지도 제고를 담고 있다.³⁶⁾ 초기의 방송 목표나 수년이 지난 후의 사업 목표 모두 한국을, 그

35) 서울 톡톡 뉴스 http://m.inews.seoul.go.kr/hsn/program/mobileHiSeoul/mobileArticleDetail.jsp?menuID=005001005&boardID=168278&category1=NC1&category2=NC1_5 (2014년 12월 16일 접근)

36)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2014년과 201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http://finance.seoul.go.kr/files/2013/11/528c779126f625.74083247.pdf>, <http://finance.seoul.go.kr/files/2014/11/54743e39548774.75578443.pdf> (2014년 12월 20일 접근)

리고 서울을 외국인들이 원하는 목표, 예를 들어 금융, 관광, 의료, 등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다문화는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한다. 앞 장에서의 다문화가 아시아의 제 3세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구와 한국 문화로부터 구별짓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면서 불평등한 힘의 논리를 재생산 했다면, 여기서의 다문화는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일궈낸 결과물로 세련된 코스모폴리탄 서울을 재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결국 앞 장의 경우나 여기서의 예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배경으로 한 다문화 개념이라기보다는, 자본의 논리 속에서 만들어진 타자화된 비서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나가는 말

TBS eFM은 우리 사회가 구축하고 있는 세계화와 다문화 개념을 소리로 재현하는 통로이다. 이 두 용어는 기존의 음악 연구물들이 다문화를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개념이다.³⁷⁾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정치성을 피해갈 수 없는 세계화와 다문화 개념은 TBS eFM의 음악과 프로그램 진행 및 편성에서 나타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방송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외국인은 인종, 언어, 자본이 얽힌 힘의 중심에 선

37) 최숙, 『국내 영어 FM 라디오에 대한 비판적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8권 2호, 2010, 144쪽.; 이상길, 안지현,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제 51권 5호, 2007, 58-84쪽.

소수의 사람들이며 TBS eFM은 이들에게 익숙한 소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사운드시케이프 속에서 힘의 논리를 전제로 재구성된 일부만이 다뤄지는 것이다.

다양한 소리들에 대한 진정어린 이해를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다문화주의 개념이 한 사회 안에서 어떠한 반성과 태도를 바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우리 보다 먼저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미국은 다문화와 관련된 오랜 고민이 있었다. 주목할 점은 문화 정체성과 관련된 미국 학계의 이론들이 미국이민의 흐름 및 정책 변화와 서로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 사회 전반에서 일어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표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태도와 접근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

사실 이주민을 대상으로 삼은 사회학과 역사학의 연구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믿음 중 하나는 동화 이론(assimilation theory 혹은 acculturation theory)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동화 이론은 이주민들이 궁극적으로 새 정착지의 문화와 관습에 조화를 이루면서 모국에서 지켜오던 언어, 관습, 생활양식과 규범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을 한다. 동화 이론은 “용광로(melting pot)”라는 개념으로 종종 혼용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종류의 국적, 인종, 민족, 문화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전의 특징들은 사라지고 새 정착지인 미국의 문화에 흡수되는 미국화를 의미한다. 1908년 발표된 장윌(Zangwill)의 연극제목 ‘용광로(The Melting Pot)’에서 기인한 이 개념은 그 당시 미국 사회가 그리던 이상적인 이주 사회의 모습이였다. 미국 초창기 이주의 역사가 유럽 북서쪽에서에서의 이주로 시작되었다면,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는 남서부 유럽, 특히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출신들이 미국으로 물 밀 듯이 이주해 오던 시기였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초창기 이주민들에게 이들은 열등한 존재로 비춰졌으며 같은 시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일본과 중국의 유색인종 이주자들의 존재 역시 용광로라는 이상향을 펼쳐 보이기에는 문화적 괴리감이 너무 컸다. 동화이론은 서서히 역사, 문화적으로 미국에 흡수가 되는 것이지만 갑작스런 다양한 민족, 인종의 이주민들의 등장은 이상적인 이주국가의 모습을 성취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³⁸⁾ 1920년대에는 급기야 나라별 쿼터 정책을 마련해 이들의 유입을 법적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 쿼터 정책은 1965년에 해제가 되며 이때부터는 더욱 다양한 국가, 인종, 민족 구성원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용광로의 개념을 적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는 곧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수용하는 관점의 변화로 이어졌다. 또한 이때는 한데 섞여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국에 뿌리를 둔 역사, 언어, 관습이 이주국에서도 수행되고 재현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인종, 국가, 민족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샐러드 볼”이나 “모자이크”가 “용광로”를 대신하게 되었다.³⁹⁾ 이주민 고유의 문화에 관심을 두는 다문화주의로의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주민들이 모국에 뿌리를 둔 문화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주민들이 이주국 주류 문화로 흡수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데에 있다.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조정, 타협, 변화시켜갈 수

38) Park, Robert, E and Ernest W. Burgess,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1.

39) Waldinger, Roger. 2004, “The 21th Century: An Entirely New Story”, Tamar Jacoby (ed), *Reinventing the Melting Pot: the New Immigrants and What It Means To Be American*, New York: Basic Books, 2004, pp. 75-86.

있는 독립된 존재로 볼 수 있게 만든 토대가 다문화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이것은 곧이어 스튜어트 홀의 주장처럼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이며 혼종성(hybridity)을 가진다고 동의하는데 이른다.⁴⁰⁾ 이전의 연구들이 특정지역, 그 곳의 거주민, 그들의 정체성 사이에서 연관을 찾아 왔다면 이제는 장소(지역), 사람, 정체성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도출하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⁴¹⁾

미국의 이민 정책과 이주민을 향한 시선의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와 세계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성찰의 기회를 준다고 믿는다. 진정한 성을 갖춘 다문화와 세계화는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 다문화 개념을 둘러싼 역학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다문화를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하는 당위성을 지닌, 정치성을 배제한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음악 연구도 이제는 보다 다양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40) Hall, Stuart,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Jana Evans Braziel and Anita Mannur (eds), *Theorizing Diaspora*,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6. pp. 233-246.

41) Gupta, Akhil, and James Ferguson,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Akhil Gupta and James Ferguson (eds), *Culture, Power, Place: Explorations in Critical Anthropology*,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7. pp. 33-51.

참고문헌

1. 기본자료

2008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2013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영어교통방송

http://www.tbs.seoul.kr/index.do?method=index&channel_code=CH_E

케이블TV방송협회

http://www.kcta.or.kr/bbs/board_view.asp?pNum=9223&page=17&bbsID=trend&backUrl=board_list.asp

The World Soundscape Project

<http://www.sfu.ca/~truax/wsp.html>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2014년과 201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http://finance.seoul.go.kr/files/2013/11/528c779126f625.74083247.pdf>, <http://finance.seoul.go.kr/files/2014/11/54743e39548774.75578443.pdf>

2. 논문과 단행본

강연희, 「국제 이주노동자밴드의 등장요인과 공연활동 현황」, 『음악과 민족』, 제 42호, 2011, 107-152쪽.

권덕원,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 교육」, 『음악과 문화』, 제 2권, 2000, 49-75쪽.

김서경, 「사운드스케이프의 음악교육적 적용방안」, 『음악과 민족』, 제 38권, 2009, 399-426쪽.

김성혜, 「다문화음악교육에 대한 음악인류학적 단상」, 『음악이론연구』, 제 16권, 2011, 8-28쪽.

김향정,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한국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 『음악과 민족』, 제 38권, 2009, 371-398쪽.

민경훈,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예술교육연구』, 제 7권 1호, 2009, 93-111쪽.

박미경, 「중족음악학과 다문화음악교육: 그 만남의 지점 찾기」, 『음악과 문화』, 제 28권, 2013, 5-33쪽.

박지영, 「미국 다문화 음악 교육의 역사적 지평과 그 중요성」, 『음악과 민족』, 제

- 43권, 2012, 339-368.
- 박혜정, 「다문화 음악의 이해 및 그 적용 : 음악교육의 사례」, 『국악과교육』, 제 10권, 1992, 103-171쪽.
- 이상길, 안지현,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제 51권 5호, 2007, 58-84쪽.
- 이수완, 「아도르노의 라디오 음악론」, 『미학』, 제 49권, 2007, 77-124쪽.
- 손민정, 「다문화적 음악의 이해를 위한 소고」, 『낭만음악』, 제 20권 3호, 2008, 135-156쪽.
- 최 속, 「국내 영어 FM 라디오에 대한 비판적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 18권 2호, 127-151쪽.
- 최유준, 「이산된 소리, 단절된 기억의 정치학: 세계화와 다문화시대의 음악과 민족」, 『음악과 민족』, 제 35권, 2008, 49-68쪽.
- 유영민, 「경계를 넘나드는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음악 자이니치 코리안의 음악을 중심으로」, 『음악학』, 제 20권, 2011, 7-27쪽
- 윤혜진,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비한국계를 중심으로」, 『음악과 문화』, 제 10권, 2004, 163-200쪽.

Appadurai, Arjun,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Attali, Jacques, *Noise: Political Economy of Music*,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Gupta, Akhil, and James Ferguson,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Akhil Gupta and James Ferguson (eds), *Culture, Power, Place: Explorations in Critical Anthropology*,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7. pp. 33-51.

_____, "Culture, Power and Place: Ethnography at the End of an Era", Akhil Gupta and James Ferguson (eds), *Culture, Power, Place: Explorations in Critical Anthropology*,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7. pp. 1-32.

Hall, Stuart, "New Ethnicities",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eds), *Ethnic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155-161.

_____, 2006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Jana Evans Braziel and Anita Mannur (eds), *Theorizing Diaspora*,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6. pp.

233-246.

- Inda, Jonathan Xavier, and Renato Rosaldo, "Introduction: A World in Motion", Jonathan Xavier Inda and Renato Rosaldo (eds),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A Reader*. Malden: Blackwell Publishers, 2002. pp. 1-34.
- Kim, Soo-Jin, *Diasporic P'ungmul in the United States: A Journe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2011.
- Koo, Sun Hee, "Inventing Ethnic Music: The Vocal Music of Korean Ethnic Minority Musici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ian Musicology*, vol. 16, 2010. pp. 5-42.
- _____, *Sound of the Border: Music, Identity, and Politics of the Korean Minority Nationalit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2007.
- Marcus, Gerge E., and Michael M.J. Fisher,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An Experimental Moment in the Human Sci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 Park, Robert. E and Ernest W. Burgess,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1.
- Shafer, Murray,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uning of the World*, Rochester: Destiny Books, 1977.
- Shelemay, Kay Kaufman, *Soundscapes: Exploring Music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6.
- Um, Hae-kyung, "The Korean Diaspora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Social Change, Identity and Music-Making", Schulze, Kirsten and Stokes, Martin and Campbell, Colm (eds), *Nationalism, Minorities and Diasporas: Identities and Rights in the Middle East*, I. B. Tauris: London, 1996. pp. 217-232.
- _____, "Listening Patterns and of Identity of the Korean Diaspora in the Former USSR", *British Journal of Ethnomusicology*, vol. 9. no. 2, 2000. pp. 121-142.
- _____, "Community, identity and performing arts: the Korean diaspora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Um, Hae-kyung (ed), *Diasporas and Interculturalism in Asian Performing Arts: Translating Traditions*, London: Routledge, 2005. pp. 43-60.
- Waldinger, Roger, "The 21th Century: An Entirely New Story", Tamar Jacoby (ed),

Reinventing the Melting Pot: the New Immigrants and What It Means To Be American, New York: Basic Books, 2004. pp. 75-86

Yu, Youngmin, *Musical Performance of Korean Identities in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7.

Abstract

Sound Politics of Radio TBS eFM

— The Concepts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Kim, Soo-Jin (Gyeongju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one of the radio channels, TBS eFM, whose aims are to enhance global senses for Koreans and to provide foreign residents in Korea with information about Korean culture and society. Also, TBS eFM is to bridge between foreign residents' cultures and Korean cultures. While most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are from Asia, TBS eFM targets English speakers as their major listeners. Most programs air British and U.S. popular music as well as Korean songs including recent K-pop hits. The hosts of the programs are from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U.S.A, and a few of them are Korean descents who have emigrated to other countries, or who speak English very fluently. In this paper, I argue that TBS eFM reflects the concepts of multiculturalism and globalization that a Korean society has reconstructed. I examine the ways of how Korea has evolved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to embrace people from Asian countries and globalization to promote a sense of globalized Korea, looking at the concept of soundscape by Murray Schafer and noise by Jacques Attali.

(Key words: TBS eFM, foreigners, multiculturalism, globalization, soundscape, noise, music)

논문투고일 : 2015년 6월 30일

심사일 : 2015년 8월 1일

수정완료일 : 2015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13일